



'부모 직장'으로 출근' 탄소친환경 가족 초청 체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임직원 가족을 초청해 자녀들이 부모의 일터를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며 가족 친화 조직문화 확산에 나섰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5일 임직원 가족 초청 직장체험 프로그램인 '엄마랑 아빠랑 출근하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자녀들이 부모의 직장 간 소통과 공감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진흥원의 대표적인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는 임직원과 자녀 등 모두 33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단순한 직장 견학을 넘어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부모와 함께 사무실을 둘러보며 실제 업무 공간을 체험하고, 탄소가 뭐예요 퀴즈를 통해 생활 속 탄소소재와 탄소산업을 쉽고 재미있게 배웠다.

또한 나만의 미니 바다정원 만들기인 테라리움 체험과 마술 공연 '내가 그린 우리 엄마·아빠 직장' 그림일기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해 자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가 근무하는 공간을 직접 둘러보고 그림일기를 통해 자신이 경험한 직장을 표현하며 부모의 일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가족 간 공감과 유대감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상근 기자



노인회 무주지회, 스마트경로당매니저 간담회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지회장 이광부)는 6일 무주장애인노인복지관 2층강당에서 스마트경로당매니저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광부 지회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프로그램 접속식 대처방법 및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스마트경로당매니저 활동 중에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등을 토론했다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스마트경로당 매니저는 스마트경로당 시범사업으로 무주가 선정되어 2024년 55개소, 2025년 45개소 총 100개 경로당에 스마트TV 등을 공급하고 무주장애인노인복지관에 스튜디오를 설치 매주 월·수·금 체조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진행시간에 업무지원, 인바디 등 편의 장비 활용 편의제공 등을 위해 2026년 역량활동 노인일자리사업으로 44명을 선발 2~3개 스마트경로당을 순회방문 운영하고 있다.

이광부 지회장은 인사말씀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폭염속에 어르신들에 안전과 건강"이라며 무리하지 말고 잘 습득하여 프로그램 송출시 원활하게 진행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에 주실것을 당부했다.

/무주=손홍기기자



남원시보건소, 안심 기저귀 가방 전달식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난 5일, 치매안심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 福(복)을 담은 안심 기저귀 가방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역 출산가정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전달식은 출산과 육아를 시작하는 가정을 응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볼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 시 보건소, 시민소통담당관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복주머니봉사단, 출산가정 등이 참석했으며, 복주머니봉사단은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기저귀가방 50개를 남원시보건소에 전달했으며, 보건소는 이를 지역 임신부와 출산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저귀 가방은 복주머니봉사단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육아에 필요한 실용성과 함께 출산가정을 응원하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조사료 농가·공무원 합격자 '한마음'

조사료협회 정읍시부·시 청년취업시험준비반 합격자 25명, 장학금 쾌척

한국조사료협회 정읍시지부와 정읍시 청년취업시험준비반 공무원시험 합격자 25명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600만원을 기탁했다.

6일 정읍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서 한국조사료협회 정읍시지부와 청년취업시험준비반 합격자들은 정읍시 민정학제단에 각각 3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조사료협회 정읍시지부는 가족에게 먹이는 국산 조사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마련했다.

협회는 조사료 생산 경영체인 법인 56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질 좋은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이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1,6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꾸준히 나눔도 이어오고 있다.

정읍시 청년취업시험준비반을 통해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25명도 뜻을 모았다. 이들은 정읍시로부터 받은 지원에 감사하는 마음과 합격의 기쁨을 지역사회에 나누고, 후배와 미래 인재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학수 이사장은 "지역 농업인과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도움을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모습이



큰 감동을 준다"며 "소중한 장학기금은 지역 학생들이 꿈을 이루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청년취업시험준비반은 공무원과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공무원시험 준비반 101명과 공기업 준비반 12명 등 모두 113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대병원, 인턴 대상 VR 임상술기 교육 첫 실시

가상현실 기반 실전형 교육으로 역량 강화

2028년 스마트임상교육센터 건립 추진 중

전북대학교병원이 인턴들을 대상으로 가상현실(VR) 기반 임상술기 교육을 실시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에 나섰다. 전북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턴들을 대상으로 VR 기반 임상술기 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응급 및 필수외과 현장을 가상현실로 구현해 인턴들이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임상 판단 능력과 술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노인보건의료센터 지하 백제홀에서 진행된 교육에서는 VR 장비를 착용한 인턴들이 3차원 가상현실 속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응급실을 찾은 중증외상환자의 치료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실습을 경험했다.

특히 매체교육을 활용한 기존 술기 교육과 달리 가상현실 기반 임상교육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인 전북대병원에서 처음 도입된 방식으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다양한 응급 상황을 안전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실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임상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응급 및 필수 술기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조별 경쟁 방식의



소규모 실습을 통해 참여자들의 흥미와 교육 효과를 높였다.

인턴들은 신경계 사정, 재난환자 분류(Triage), 전문 심폐소생술(ACLS), 급성 심근경색 환자 대응, 응급실 의식저하 환자 처치 등 다양한 임상 시나리오를 VR 콘텐츠를 활용해 체험했다.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VR 기반 교육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VR 교육과 첨단 AI 기반 시뮬레이션 교육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임상교육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주교도소, '사랑의 헌혈 캠페인' 개최

여름철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한 생명 나눔 실천에 전주교도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법무부 전주교도소(소장 주정민)는 6일 교도소 청사에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지원하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휴가와 폭염 등으로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는 시기를 맞아 안정적인 혈액 공급망 확보에 힘을 보태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교도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헌혈에 나서며 생명 존중과 이웃 사랑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직원들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가까이 소매를 걸어볼 이고 헌혈에 동참하며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늘 앞장서서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교정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주정민 전주교도소장은 "우리가 나눈 소중한 혈액이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헌혈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가며,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따뜻한 교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농업마이스터 오만종씨, 고창군에 장학금 기탁

고창군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업마이스터 오만종씨가 지난 5일 (재)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심덕섭 고창군수)에 장학금 35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깊은 울림을 전했다.

오만종씨는 뛰어난 농업 기술과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농업마이스터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며 변함없는 지역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 드림스타트, 학령기 아동 대상 건강검진

임실군은 지난 3일부터 6일, 10일, 13일 총 4일간 임실군 보건의원원과 연계하여 드림스타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드림스타트 건강검진 사업은 학교 건강검진 대상자인 1, 4학년을 제외한 신체적·정서적으로 급성질환은 초등 학교 2, 3, 5, 6학년 재학생 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검진 항목은 △건강상담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림스타트에서 전액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검진 결과 시력 저하로 안경 착용이나 교체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추후 '안경 지원 사업' 대상자로 연계 선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한득수 군수는 "이번 건강검진이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예방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실군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정서 등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임실=진홍영기자